

##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에 대한 토론문

안신원(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발견된 중원식 청동예기는 제작자, 제작동기 및 연대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중원지방과의 교차연대를 통해 편년과 분기가 가능하므로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연대를 확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발표자는 그동안 중국 동북지방에서 발견된 중원식 청동예기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참신한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지적한 중원식 청동예기의 속성과 연대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그러나 발표자가 제기한 바와 같이 중원식 청동예기의 매납맥락이나 유입경위는 다각도로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에 토론자가 생각하는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하가점상층문화에서 발견된 중원식 청동예기는 연(燕) 이주민에 의해 소유되고 매납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주체가 청동예기를 직접 입수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청동예기는 화북평원 일대에서 활동한 용계(戎系)의 제족(諸族)에 의해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주체에게 “중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토론자가 이해하기로는 “중계”란 전쟁과 약탈을 비롯한 중원인과 북방 제민족 사이의 군사적 갈등관계를 의미하며, 이렇게 유입된 청동예기는 다시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주체에게 “건네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청동예기를 용계의 제족이 입수한 경위를 발표자가 제시한대로 오로지 이러한 갈등관계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발표자가 제시한 “중계”의 의미와 개념은 무엇인지, “중계”의 방식은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중원인과 용계 제족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파악한다면, 용계 제족과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주체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 다시 설명되어야 하며, 왜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주체에게 청동예기가 “건네진”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가 필요하다.

2. 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예기는 용정제도(用鼎制度)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청동예기나 공반된 부장품으로 보아 수장급의 무덤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런데 첫 번째의 질문과 관련하여 청동예기가 “중계”된 것이라면, 왜 하가점상층문화의 영위주체의 일부에서만 청동예기가 확인되지는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즉, 청동예기가 부장된 석곽묘의 피장자와 기타 청동기류가 부장된 무덤의 피장자와의 신분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 사이의 교류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3. 발표자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중원지방의 청동예기 교장갱은 상대(商代)에는 제사갱의 성격이 강하고 주대(周代)에는 저장갱의 성격이 강하며, 반면에 요서지방의 교장갱은 “맥락을 상실한 잡다란 물건의 집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하가점상층문화에서 확인된 중원식 청동예기 출토유적 중 광림하광구(霍林河礦區) 교장갱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매납의 맥락은 어떠한 것인지, 석곽묘에서 출토된 청동예기와는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